

I. 교역자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 조사

(현직 교역자 노후복지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배현송 위원*

(수위단회 사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들어가는 말.....	7
2. 현행 노후복지 정책과 제도.....	10
3. 설문조사 내용분석.....	15
4. 교역자 노후복지 의식조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	45
5.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	47
6. 마무리하는 말.....	54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화, 핵가족화, 부양의식의 약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 등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

* 배현송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사업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동그라미 재활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의 중점문제가 될 것이다.¹⁾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에서도 ‘고령화’ 문제는 주요 화두로 부상되고 있다. 고령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22년에는 전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30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115년이나 걸린 프랑스나 26년 걸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된다.²⁾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오지 못한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그 동안 47개 (기준154개)를 확충하는 것 외에 경로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충원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복지문제는 교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년 퇴임한 교역자들의 노후대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는 1992년 서 윤교수가 「전무출신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³⁾를 발표하였고, 2000년 김언하가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⁴⁾를 통해 교단 전반적인 노후복지의 과제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교단의 노후복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교정원 당무부서인 공익복지부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바이에 교단내에서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1) 서 윤, “21세기 노인복지와 원불교”, 『21세기와 원불교』, 제21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2002, p.206.

2) 「주간 사회복지신문」, 2002. 1. 21. 일자.

3) 서 윤, “전무출신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 『원불교 사상 제19집』, 1995.

4) 김언하,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2. 연구목적

현장에 근무하는 교역자 대비 퇴임자의 비율이 원기 86년 11%였던 것이 원기 90년 12.8%, 원기 95년 20%, 원기 100년에는 30.6%로 교단은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역자 노후문제는 심각하게 부상되고 있다. 이에 일생을 몸과 마음을 공중에 바쳐 오로지 헌신 봉공한 교역자가 퇴임 후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파급은 교역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고, 교역자 상호간에 있어지는 빈부의 격차 또한 교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교역자들의 교단의 노후복지대책에 대한 생각, 정양기관에 대한 의견, 교역자 생활의 경제규모, 개인의 노후대책 현황 등에 교역자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익복지부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당장 건립해야 하는 정양기관의 위치, 규모,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별, 급료형태별로 분석하고 전 교역자가 노후복지를 준비하기 위해 부담하는 후생회비와 노후에 받게 될 후생복지금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교단의 노후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전 교역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불제중 제생의세의 서원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3. 연구방법

본 조사연구는 원기 86년 6월초에 기관·교당 일람표상의 현직교역자를 대상으로 1,200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7월말까지 회신된 459명(회수율 38.3%)을 근거로 연구하였다.

질문지는 공익복지부가 제시한 현안문제에 대해 한창민교수⁵⁾의 자문을 얻어 만들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9.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4. 연구한계

현직 교역자 1,552명(원기 87년 2월 현재)중 원기 86년 출가식한 43명의 신임교역자와 원광대학교 교직원과 해외교역자와 요양원 휴무자 등이 제외된 1,200명을 대상

5)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교수.

으로 설문조사 되었음을 밝혀둔다.

II. 현행 노후복지 정책과 제도

교역자들의 노후복지란 정년퇴임한 교역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교역자들이 은퇴를 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단, 사회, 가족으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은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개발하여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 주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을 의미한다.⁶⁾

현재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복지제도로는 정년퇴직제도, 수도원제도, 후생복지금제도, 의료요양제도를 들 수 있다.⁷⁾

1. 정년 퇴직제도와 퇴임자 현황

전무출신 규정에서는 「전무출신의 정년은 68세로 하며,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원에 따라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다.」고 정년퇴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기 87년 2월 15일 현재 교단 내 전체 교역자는 1,724명이며, 이중 172명이 퇴임자로서 여자 133명, 남자 39명이다. 그리고 향후 전무출신 퇴임 예정자는 원기 90년 까지는 44명이, 원기 95년까지는 120명, 원기 100년도까지는 179명이 늘어나 원기 100년도에는 퇴임자 수가 515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역자 중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8세 퇴임연령을 기준으로 공익복지부에서 파악하여 제시하는 수치이다.

6) 김언하, 상계서, p. 16.

7) 서 윤, 「전무출신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 『원불교사상 제19권』, 원광사, 1995, p. 566.

<표 II-1> 연도별 퇴임 예정자 현황(퇴임연령 만68세 기준, 열반자 없는 경우) (단위: 명)

	여	남	합계	누적합계
원기 86년까지	125	37	162	162
87년	8	2	10	172
88년	6	6	12	184
89년	6	8	14	198
90년	7	11	18	216
91년	20	6	26	242
92년	12	8	20	262
93년	21	9	30	292
94년	16	5	21	313
95년	18	5	23	336
96년	28	2	30	366
97년	22	7	29	395
98년	23	14	37	432
99년	32	5	37	469
100년	35	11	46	515
합계	379	136	515	515

2. 수도원 제도와 정양기관 현황

전무출신 규정의 노후정양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무출신으로서 정년이 되면 현직에서 퇴임하여 수도원이나 수양원에서 정양을 한다.」라고 수도원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단 내 정양기관으로는 중앙 원로 수도원과 중앙 원로 수양원, 동산 원로 수양원, 수양의 집, 영산 원로 수도원이 있으며 현재 성별 정양기관 입원 현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정양기관 입원 현황

(원기 86년 8월 31일 현재)

구분	중앙원로 수도원	중앙원로 수양원	동산원로 수양원	수양의집	영산원로 수도원	현장	기타	합계
여자	51(50)	0	24(14)	23	10(10)	8(3)	9(5)	125(82)
남자	0	16(4)	18	0	0	0	3	37(4)
합계	51(50)	16(4)	42(14)	23	10(10)	8(3)	12(5)	162(86)

* () 안의 수는 정화단원 숫자임. * 공익복지부 자료 제공

한 명 교역자가 정양기관에서 생활하게 될 때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는 월 30만원 정도⁸⁾된다. 이는 운영비, 용금, 급여, 직원복리비, 부가용금, 후생지원금, 식비, 차량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 돈이며 그 동안 중앙 총부 정양기관 기관 보조금의 명목으로 지출되어진 금액이다. 이외에도 노환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거의 필수 적임을 감안할 때 1인당 한 달에 50~60만원의 경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역자 1인이 차지하고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10평정도로 추정되며 의산시 아파트 건축비 기준으로 볼 때 2천만원정도의 주거공간비가 요구되어지며 늘어나는 퇴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양기관의 확보가 큰 과제이다.

3. 후생 복지금 제도와 현황

후생 복지금 제도는 정년퇴임 전무출신의 생활지원금 제도로서 근무경력에 따라 4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정남정녀인 정화단원에게는 3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II-3> 후생복지금 지급 기준에 따른 구분 및 금액

(원기 86년 8월 31일 기준)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기준회원 (근무년수)	30년이상	20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금 액(원)	198,000	166,000	125,000	65,000

※ 위 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복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대상자를 선정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라급의 복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후생복지금 및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표 II-4>와 같다.

8) 원기 86년도 중앙 원로 수도원(52명) 운영비 예산규모 180,428,000원,

1인당 월간 운영비 = $180,428,000\text{원} \div 52\text{명} \div 12\text{월} = 289,147\text{원}$,

소규모 시설일수록 운영비 부담이 커질 확률이 높다.

<표 II-4> 후생복지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 인원

(원기 86년 8월 31일 기준)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합계
후생복지금	여	81	21	17	6
	남	30	3	3	1
특별지원금	여	76	6	0	0
	남	4	0	0	0
※ 예우단원 6명 포함					

원기 86년 8월 기준으로 현재 교단에서 후생복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은 한 달 31,497,000원에 이르고 있다. 향후 크게 증가될 퇴임교역자 수를 감안 할 때, 현재 교단의 적립된 후생복지기금 21억 4천 4백만원은 턱없이 부족될 전망이다.

이러한 후생복지금은 전무출신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발족하고 회원에게 퇴임 후 후생을 위한 후생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복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후생사업 회에서 회비로 지급되며 교단의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후생사업회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⁹⁾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후생복지금은 후생회비 납부를 함으로써 적립에 대한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무기간내에 후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후생복지금이 주어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일반 연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교당과 기관에 근무하는 교역자는 부담액이 커지고, 어려운 기관 교당에 근무하는 교역자는 부담액을 줄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후생회비 부담을 개인의 용돈이나 용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관 교당에서 공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력 여부에 따라 후생회비를 차등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 후생회비는 정액은 급지와 직급에 따라 부과하여 급지는 6등급으로 하고 직급은 4급이상 전무출신과 5급 전무출신을 구분하여 2등급으로 한다.

9) 원기 86년 후생사업회 세입 결산보고 (원기 86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전년도이월금	회비수입	과년도수입	투자수입	이자수입	특별기금	특별수입	합계
금액 (원)	2,030,826,341	530,220,000	56,682,600	134,671,570	142,481,333	141,129,554	1,000	3,036,012,398
백분율 (%)	66.9	17.5	1.9	4.4	4.7	4.6	0.0	100.0

<표 11-5> 연회비 급지별 내역 (원기 87년 현재)

(단위 : 원)

직급 급지		상급지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리급지	마급지
금액	4급이상	875,000	559,000	460,000	403,000	304,000	144,000
	5급	569,000	385,000	366,000	329,000	231,000	120,000
기관교당수	69개	109개	75개	103개	96개	241개	

4. 의료 요양제도

「복무 중 발병하거나 일정기간 봉공 후 치료와 휴양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요양 및 휴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전무출신 규정에 준하여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전무출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으므로 퇴임자를 위한 특별한 의료요양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무출신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구로는 법은 사업회가 있다.

모든 전무출신은 공익복지부장의 주관 아래 2년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처의 처지에 따라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대상은 정식 전무출신으로서 요양을 원하는 사람과 예비 전무출신으로서 요양 심의 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자이다. 치료와 정양을 하고자 할 때는 요양신청서, 소속 기관장·교구장의 동의서, 전문의사의 진단서, 요양원 입원 신청서를 갖추어 교정원 공익복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급치료(수술)가 필요한 경우 앞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요양 승인을 받은 자는 공익복지부장이 지정하는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요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 범위는 모든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치료와 정양 그리고 예방이지만 치과질환의 경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과 교통사고시 자손의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제외한다. 요양비는 입원치료와 정양을 원하는 자는 전액 지급하며 직무 중 통원 치료하는 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요양심의위원회 결의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한다. 요양(치료포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⁰⁾

이상과 같이 의료 요양제도가 있기는 하나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에 따른 전

10) 『원불교 헌규집』, 전무출신 요양규칙, p. 283.

문적인 요양시설을 갖추는 일과 간병을 위한 기능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¹¹⁾

III. 설문조사 내용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총 459명으로 이중 여자교역자는 303명으로 66.0%이고, 남자교역자는 148명으로 32.2%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8.3%, 40대가 32.9%, 50대가 26.1%, 60대가 10%로 40대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5.8세이다. 남녀별 연령분포는 여자교역자는 4-50대가 전체의 63.9%를 차지하는 반면에 남자교역자는 40대 이하가 80.1%를 차지하여 연령별 분포에서 남자교역자가 다소 평균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현 근무지에 대한 응답에서 교당이 61.2%, 총부가 11.3%, 복지기관이 9.4%이다. 응답자중 많은 수가 교당에 근무하는 교역자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당에 근무하는 교역자들의 급지에 대한 분포는 다급지가 16.8%, 마급지가 15.0%로 다소 많으며, 상급지가 5.2%로 다소 낮았고 그 외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급지가 상급지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현 근무지의 위치에 따른 분포에서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26.6%, 10만~99만의 중소도시가 35.1%, 읍·면단위가 30.7%로 다소 고른 분포이다.

지위에 대한 응답에서 주임교무가 56.2%, 보좌교무가 22.2%, 교감이 9.4%, 부교무가 6.8%로 주임교무로 집중되었고, 급료 형태는 용금만 받는다가 70.6%,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다가 19.0%, 급료를 받는다가 3.5%로 응답자중 많은 수가 용금만 받고 있다.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미혼이 70.2%이고, 기혼이 28.1%이다. 이는 여자교역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남자교역자만 볼 경우는 기혼이 83.1%, 미혼이 16.9%이다.

11) 김언하, *상계서*, p.37~38.

<표 III-1>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

성별 유형별	여자	남자	계	성별 유형별	여자	남자	계
사례수	303명	148명	459명	사례수	303명	148명	459명
연령별	100.0	100.0	100.0	지위별	100.0	100.0	100.0
30대이하	22.4	40.5	28.3	교감	10.6	6.1	9.4
40대	31.0	38.5	32.9	주임교무	64.4	41.9	56.2
50대	31.7	15.5	26.1	보좌교무	17.5	32.4	22.2
60대	12.9	4.1	10.0	부교무	3.3	14.2	6.8
무응답	2.0	1.4	2.6	무응답	4.3	5.4	5.4
근무기관별	100.0	100.0	100.0	근무지 위치별	100.0	100.0	100.0
교당	71.9	39.9	61.2	대도시	28.1	23.6	26.6
총부	7.9	18.2	11.3	중·소도시	31.7	43.2	35.1
복지기관	5.9	16.9	9.4	읍·면단위	34.3	24.3	30.7
기타	14.3	25.0	18.1	무응답	5.9	8.8	7.6
교당급지별	100.0	100.0	100.0	결혼유무	100.0	100.0	100.0
상급지	5.0	6.1	5.2	예	2.0	83.1	28.1
가급지	12.5	10.1	11.8	아니오	96.7	16.9	70.2
나급지	11.2	9.5	10.5	급료형태별	100.0	100.0	100.0
다급지	16.5	15.5	16.8	용금만	89.4	32.4	70.6
라급지	15.2	6.8	12.2	용금+생활지원금	1.3	56.1	19.0
마급지	18.8	8.1	15.0	급료	1.3	8.1	3.5
무응답	20.8	43.9	28.5	무응답	7.9	3.4	7.0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가.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

이 영역에서는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고 향후 노후복지문제의 심각성 인지 및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복지 책임의 주체 및 노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점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1)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신뢰도

- ① 노후복지에 대한 교단의 보장정도에 대해서는 <표 III-2>에서와 같이 약간 보장된다. 40.5%, 제법 보장된다가 20.3%, 확실히 보장한다가 8.9%로 긍정적인 평가는 29.2%라면 별로 보장 안한다. 등 부정적인 평가는 29.7%였다.

- ② 노후복지에 대한 현재 교단의 노력정도에 대해서는 <표 III-2>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평가는 36.1%, 반반이다가 29.0%, 긍정적인 평가는 34.4%였다.
- ③ 노후문제를 교단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표 III-2>에서와 같이 교단이 알아서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39.6%, 반반이다가 28.8%, 해결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31.4%를 보이고 있다.

<표 III-2>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신뢰도

(단위: %)

교단의 보장정도	교단의 노력정도	교단에 대한 믿음
확실히 보장함	8.9	확실히 노력함
제법 보장함	20.3	노력한 편임
약간 보장함	40.5	반반이다
별로 보장안함	25.3	별로 노력안함
전혀 보장안함	4.4	전혀 노력안함
합 계	100.0 (459)	합 계
		100.0 (459)
		합 계
		100.0 (459)

* 무응답 제외

이 세 문항은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는 문항이므로 3개 문항 구성변수의 평균값을 내보면 3.06으로 나와 교단의 노후복지에 대한 신뢰도는 반반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뢰도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보니 여자는 3.10, 남자는 2.9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2.77, 40대는 2.87, 50대는 3.31, 60대는 3.76로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표 III-3> 성별·연령별 3개 문항 구성변수의 평균값(5점 척도상)

		평균값
성별	여자	3.10
	남자	2.97
연령별	30대이하	2.77
	40대	2.87
	50대	3.31
	60대	3.76
전체		3.06

(2) 향후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인지 및 그 대책

원불교 교역자 노후복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할 것이다(68.8%), 약간 심각할 것이다(24.8%), 보통이다(2.2%), 별로 심각할 것 같지 않다(1.3%),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0.7%)로 나타나 응답자의 93.6% 심각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니 남녀별 의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4> 교역자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인지의 성별 비교 (단위 : %)

		매우 심각함	약간 심각함	보통	별로 심각안함	전혀 심각안함	합계
전체		68.8	24.8	2.2	1.3	0.7	100.0(459)
성별	여	69.3	23.8	2.6	1.3	1.0	100.0(303)
	남	69.6	26.4	1.4	0.7	0	100.0(148)

* 무응답 제외

연령별로 교차 분석해보면 30~40대는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비율이 50~6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교역자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인지의 연령별 비교 (단위: %)

		매우 심각함	약간 심각함	보통	별로 심각안함	전혀 심각안함	합계
전체		68.8	24.8	2.2	1.3	0.7	100.0(459)
연령대	30대 이하	76.2	20.0	1.5	0	0	100.0(127)
	40대	74.2	22.5	1.3	1.3	0	100.0(150)
	50대	63.3	27.5	4.2	2.5	0.8	100.0(118)
	60대	50.0	39.1	2.2	0	2.2	100.0(43)

* 무응답 제외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를 전체 응답자로 나눠서 백분율로 계산해보니, 현재처럼 시설(수도원, 원로원 등)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64.4%),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

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57.3%),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34.3%), 교역자의 현행 후생 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할 것 같다(31.7%),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31.0%), 정년의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 같다(16.4%), 퇴임 교역자 자신들에게 자신의 복지 문제의 일부를 알아서 책임지도록 해야겠다(11.2%) 순으로 나타나 현 시설에 모시는 것 외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노후 용금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자의 심각한 노후복지에 대해서 성별로 분석하여 보면 여자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63.9%,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7.8%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도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66.9%, 각자의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4.5%로 나타나 여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가 42.8%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6>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의견 및 성별 비교

(단위 : %)

항 목	전체 (439명)	여 (294명)	남 (145명)
1. 현재처럼 시설(수도원, 원로원 등)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64.4	63.9	66.9
2.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57.3	57.8	54.5
3.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34.3	30.3	42.8
4. 교역자의 현행 후생 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할 것 같다	31.7	32.0	31.0
5.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31.0	30.3	31.7
6. 정년의 연령을 상향조정을 할 것 같다	16.4	16.3	16.6
7. 퇴임 교역자 자신들에게 자신의 복지 문제의 일부를 알아서 책임지도록 해야겠다	11.2	8.5	17.2

결혼유무별로 분석하여 보면 기혼자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64.3%,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6.3%,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가

43.7%로 나타나 교당에 사는 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으며, 미혼자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66.0%,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8.3%로 나타나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별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I-7>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결혼유무별 비교

(단위: %)

항 목	전체 (439명)	기혼 (126명)	미혼 (312명)
1. 현재처럼 시설(수도원, 원로원 등)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64.4	64.3	66.0
2.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57.3	56.3	58.3
3.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34.3	43.7	31.1
4. 교역자의 현행 후생 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할 것 같다	31.7	34.9	30.4
5.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31.0	32.5	30.8
6. 정년의 연령을 상향조정을 할 것 같다	16.4	19.8	14.7
7. 퇴임 교역자 자신들에게 자신의 복지 문제의 일부를 알아서 책임지도록 해야겠다.	11.2	19.0	8.3

연령대별 비교에서 30대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76.2%,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46.2%로 나타나고 있으며, 40대는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70.2%,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8.3%로 나타나고 있다. 50대는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56.7%,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49.2%로 나타나 다른 것과는 다르게 현 시설에 모시는 것과는 다른 대책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60대는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가 71.7%, 교역자의 현행 후생 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할 것 같다가 58.7%,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가 41.3%,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가 34.8%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후생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함과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의 숙소를 사가로 하는 것에

서는 높게, 현 시설에 모시는 것과는 다른 대책에 대해선 낮게 나오고 있다.

<표 III-8>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단위: %)

항 목	전체 (439명)	30대이하 (130명)	40대 (151명)	50대 (120명)	60대 (46명)
1. 현재처럼 시설(수도원, 원로원 등)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64.4	76.2	70.25	49.2	34.8
2.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용금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57.3	46.2	8.3	56.7	71.7
3. 퇴임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34.3	28.5	36.4	38.3	28.3
4. 교역자의 현행 후생 복지비 부담을 올려야 할 것 같다	31.7	22.3	27.8	34.2	58.7
5.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31.0	26.9	31.1	29.2	41.3
6. 정년의 연령을 상향조정을 할 것 같다	16.4	14.6	11.3	20.8	23.9
7. 퇴임 교역자 자신들에게 자신의 복지 문제의 일부를 알아서 책임지도록 해야겠다.	11.2	14.6	10.6	8.3	10.9

(3) 노후복지 책임의 주체

앞으로 정년퇴임을 하는 교역자 숫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단, 본인, 국가, 자녀, 기타 주체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퍼센트(%)를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 주체를 조금이라도 기록한 사례들의 빈도수를 살펴보자면 교단(96.9%), 본인(44.4%), 근무교당이나 기관(15.3%), 교구(11.3%), 국가(10.5%), 자녀(3.7%), 기타(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용답을 감안해 볼 때 교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며 본인도 상당부분 책임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9> 노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빈도 및 책임정도에 대한 평균

	교단	본인	근무한 교당·기관	교구	국가	자녀	기타
응답자수(명)	445	204	70	52	78	17	5
빈도율(%)	96.9	44.4	15.3	11.3	10.5	3.7	1.1
책임성평균(%)	78.6	21.6	22.3	24.7	24.4	16.5	19.0

그리고 각 책임주체들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교단의 책임성에 대해 볼 때 100% 책임져야 한다가 39.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71%~99% 책임져야 한다가 23.7%, 41~70%가 28.1%로 이들 응답자의 평균수치¹²⁾는 78.6%가 되었다.

본인의 책임성에 대하여 볼 때 0%가 52.5%, 20%이하 34.9%, 21~40%는 6.8%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20%이하의 책임성을 생각하였다. 근무교당이나 기관의 책임성에 대하여 볼 때 0%가 81.6%, 20%이하가 10.5%로 많은 교역자가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약간 있다면 20%이하로 보고 있다. 국가의 책임성을 보면 0%가 79.9%, 20%이하가 10.7%로 나타나 이 또한 많은 교역자가 국가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있다면 20%이하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I-10> 노후복지 책임 주체들의 책임정도에 대한 분포 (단위: %)

	교단	본인	근무한 교당·기관	교구	국가	자녀	기타
100%	39.2	0	0	0	0	0	0
71~99%	23.7	0.2	0.2	0.2	0.2	0	0
41~70%	28.1	2.6	1.3	0.9	2.4	0.2	0
21~40%	3.5	6.8	3.3	3.1	3.7	0.2	0.2
1~20%	2.4	34.9	10.5	7.2	10.7	3.3	0.9
0%	0	52.5	81.6	85.6	79.9	93.2	95.8
합계(사례수)	100.0(459)	100.0(459)	100.0(459)	100.0(459)	100.0(459)	100.0(459)	100.0(459)

* 무응답 제외

(4) 노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노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문제가 56.0%, 수행정진이 17.6%, 품위유지를 위한 용금이 6.5%, 보람된 생활이 8.1%, 즐거운 생활이 6.5%, 남에게 유익한 생활이 4.1%로 나타나 건강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보면 여자는 건강문제가 63.0%, 수행정진이 17.6%로 나타나며, 남자는 건강문제가 40.5%, 수행정진이 23.0%, 품위 유지를 위한 용금이

12) $\Sigma(\text{책임성비율}(\%)) \times \text{응답자수} \div \text{전체응답자수}$

14.9%로 나타나, 건강문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행정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용금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노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성별 비교

(단위: %)

		건강문제	품위 유지를 위한 용금	즐거운 생활	수행 정진	보람된 생활	남에게 유익한 생활	합계(사례수)
전체		56.0	6.5	6.5	17.6	8.1	4.1	100.0(459)
성 별	여	63.0	2.6	6.6	15.2	6.6	4.6	100.0(303)
	남	40.5	14.9	6.8	23.0	10.8	3.4	100.0(148)

* 무응답 제외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건강문제에 대해서 60대는 76.1%, 50대는 56.7%, 40대는 57.0%, 30대이하는 46.9%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수행정진에 대해서 60대는 10.9%, 50대는 20.8%, 40대는 14.6%, 30대이하는 21.5%로 나타나 건강과는 반대로 나이가 낫아짐에 따라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표 III-12> 연령대에 따른 노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건강 문제	품위 유지를 위한 용금	즐거운 생활	수행 정진	보람된 생활	남에게 유익한 생활	합계(사례수)
전체		56.0	6.5	6.5	17.6	8.1	4.1	100.0(459)
연 령 대	30대이하	46.9	4.6	6.9	21.5	13.8	21.5	100.0(130)
	40대	57.0	8.6	8.6	14.6	6.6	4.6	100.0(151)
	50대	56.7	8.3	4.2	20.8	4.2	4.2	100.0(120)
	60대	76.1	0	4.3	10.9	6.5	0	100.0(46)

* 무응답 제외

급료형태로 보면 건강문제에 대해서 용금만 받는다(60.8%),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다(40.2%), 급료를 받는다(37.5%)로 용금만 받는 사람이 더 건강문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행정진에 대해서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다(27.6%), 용금만 받는다(16.7%), 급료를 받는다(6.3%) 순으로 나타났고, 품위유지를

위한 용금에서 급료를 받는 사람이 37.5%로 나와서 다른 것과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III-13> 급료형태에 따른 노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

		건강문제	품위유지를 위한 용금	즐거운 생활	수행정진	보람된 생활	남에게 유익한 생활	합계(사례수)
전체		56.0	6.5	6.5	17.6	8.1	4.1	100.0(459)
급료형태	용금	60.9	2.9	7.8	16.8	8.1	3.5	100.0(324)
	용금과 생활지원금	40.4	15.1	3.6	27.9	7.1	5.9	100.0(87)
	급료	37.5	37.5	6.3	6.3	12.5	0	100.0(16)

* 무응답 제외

이는 1992년 서윤교수와 2000년 김언하의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걱정되는 것에서 수행정진이 61.0%, 43.8%, 건강문제가 26.0%, 35.2%, 경제적인 문제가 2.8%, 11.4%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수행정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높아졌으며 수행정진에 대한 우려는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4> 노후에 가장 중요하거나 걱정되는 것의 추이

(단위: %)

		건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행정진	기타	합계(사례수)
1992		26.0	2.8	61.0	10.2	100.0(270)
2000		35.2	11.4	43.8	9.6	100.0(172)
2001		56.2	6.7	17.8	19.9	100.0(459)

* 무응답 제외

나. 정양기관에 대한 의견

(1) 건립 장소

새로운 정양기관 건립한다면 가장 좋은 곳과 두 번째 좋은 곳, 세 번째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하면 1, 두 번째는 0.8, 세 번째는 0.6의 가중치를 두어 총합계를 낸 다음 응답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해보

니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44.8%), 총부(35.2%), 영산(34.1%),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25.1%), 변산(16.4%), 중소도시(13.0%), 대도시지역(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는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이 44.7%, 총부가 36.9%, 영산이 28.9%로 나타나며, 남자는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이 46.1%, 영산이 31.9%, 총부가 29.5%로 영산과 총부의 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정양기관 건립 장소에 대한 의견의 성별 비교 (단위: %)

	총부	영산	변산	대도시	중소도시	총부 근처 경관좋은산골	어느 곳이나 경관좋은산골	기타	사례수
전체	35.2	34.1	16.4	11.6	13.0	44.8	25.1	38.6	459
성별	36.9	28.9	14.9	10.5	18.8	44.7	23.4	39.4	291
남	29.5	31.9	18.3	13.9	9.4	46.1	28.8	38.9	141

* 무응답 제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46.3%), 총부(28.5%), 영산(28.3%)의 순으로 나오며, 40대는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50.2%),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31.4%), 영산(30.1%)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관 좋은 산골을 많이 선호함을 볼 수 있다. 50대는 영산(45.2%), 총부(43.0%),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42.0%)로 나타나며, 60대는 총부(61.3%),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32.0%), 영산(31.3%)으로 나타나 총부와 영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6> 정양기관 건립 장소에 대한 의견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총부	영산	변산	대도시	중소도시	총부 근처 경관좋은산골	어느 곳이나 경관좋은산골	기타	사례수
전체	35.2	34.1	16.4	11.6	13.0	44.8	25.1	38.6	459
연령대	30대 이하	28.5	28.3	16.5	13.3	17.0	46.3	25.8	44.0
	40대	25.1	30.1	17.4	11.0	15.2	50.2	31.4	36.0
	50대	43.0	45.2	15.4	12.1	9.8	42.0	24.0	34.2
	60대	61.3	31.3	14.3	8.2	3.4	32.0	6.0	45.2

* 무응답 제외

(2) 건립 시 고려할 점

정양기관 건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과 두 번째, 세 번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 고려할 점에 기재하면 1점, 두 번째에 기재하면 0.8점, 세 번째에 기재하면 0.6의 가중치를 두어 총합계 한 뒤 응답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했다.

정양기관 건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67.6%), 병원이 가까운 곳(66.7%), 경치가 좋은 곳(38.5%), 조용한 곳(28.0%), 총부에 가까운 곳(27.7%), 속세로부터 떨어진 곳(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니 여자는 남자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과 총부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병원이 가까운 곳, 경치 좋은 곳, 조용한 곳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높았다.

<표 III-17> 정양기관 건립 시 고려할 점의 성별 비교

(단위: %)

	교통이 편리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	경치가 좋은 곳	조용한 곳	총부 가까운 곳	속세로부터 떨어진 곳	비고
전체	67.6	66.7	38.5	28.0	27.7	7.5	각항/459명
성별							
여	73.6	68.9	39.9	26.0	32.5	6.0	282명
남	63.1	70.6	41.5	36.1	21.3	10.6	143명

* 무응답 제외

이를 연령대별로 교차 분석해보니 40대는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높은 편이며 30~40대는 경치가 좋고 조용한 곳에 대한 선호도가 50~60대에 비해 높은 반면 50~60대는 총부에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도가 30~40대에 비해 높았다.

<표 III-18> 정양기관 건립 시 고려할 점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교통이 편리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	경치가 좋은 곳	조용한 곳	총부 가까운 곳	속세로부터 떨어진 곳	비고 (사례수)
전체	67.6	66.7	38.5	28.0	27.7	7.5	각항/459명
연령별							
30대 이하	71.5	71.1	39.0	31.7	21.6	8.3	123명
40대	65.8	70.1	44.4	34.4	24.6	6.3	144명

	교통이 편리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	경치가 좋은 곳	조용한 곳	총부 가까운 곳	속세로부터 떨어진 곳	비고 (사례수)
연령별 50대	73.3	67.4	38.2	22.7	36.8	8.5	111명
60대	72.1	67.9	36.3	23.3	41.4	9.8	43명

* 무응답 제외

이중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한 163명에 대하여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 건강문제가 60.2%로 나타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한 56.8%가 건강문제와 관련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표 III-19>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한 사람들 163명 가운데 노후에 중요한 것 (단위: %)

	건강문제	풀위유지	즐거운 생활	수행정진	보람된 생활	유익한 생활	합계 (사례수)
비율	60.2	5.6	8.1	14.8	8.1	3.2	100.0(163)

* 무응답 제외

(3) 규모

정양기관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11~30명 정도가 33.3%, 31~50명이 30.9%, 10명 이내가 13.7%, 기타가 12.4%를 보였으며 공동생활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4.6%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니 남녀별 생각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0> 정양기관 규모에 대한 성별 비교 (단위: %)

	공동생활 원치 않음	10명이내	11~30명 정도	31~50명 정도	51~100명 정도	100명 이상	계(사례수)
전체	4.6	13.7	33.3	30.9	10.4	2.0	100.0(459)
성별 여	3.3	15.8	33.3	30.7	10.3	1.7	100.0(303)
성별 남	6.8	9.5	33.8	32.4	10.8	2.8	100.0(148)

* 무응답 제외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하면 30대는 31~50명 정도가 37.7%, 40대는 11~30명 정도가 38.4%, 50대는 11~30명 정도가 31.7%, 60대는 11~30명 정도가 41.3%로 나타나 40

대·50대·60대는 11~30명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21> 정양기관 규모에 대한 연령대별 비교

(단위: %)

		공동생활 원치 않음	10명이내	11~30명 정도	31~50명 정도	51~100명 정도	100명 이상	계
전체		4.6	13.7	33.3	30.9	10.4	2.0	100.0(459)
연 령 대	30대 이하	6.9	11.5	28.5	37.7	9.2	2.3	100.0(130)
	40대	6.0	15.2	38.4	25.2	13.3	1.3	100.0(151)
	50대	0.8	15.0	31.7	30.0	10.0	2.5	100.0(120)
	60대	2.2	10.9	41.3	32.6	4.4	2.2	100.0(46)

* 무응답 제외

이는 현 수도원과 원로원의 규모가 11~30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규모에 대한 선호는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표 III-22> 현 요양기관 인원 현황

(86년 8월 31일 현재)

	중앙 수도원	원로원	동산 수도원	영산 수도원	수양의 집
인원(명)	16	51	42	10	23

(4) 정양기관의 자립노력에 대한 생각

교단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익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되며 그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양기관의 자립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가 19.4%, 찬성하는 편이다가 35.9%, 반반이다가 17.9%, 약간 반대하는 편이다가 11.8%, 매우 반대한다가 9.2%로 찬성하는 긍정적인 대답이 55.3%로 부정적인 대답 28.6%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 값의 평균값을 내면 3.27(5점척도)로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표 III-23> 정양기관의 자립노력에 대한 생각

(단위 : %)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반반이다	찬성	적극 찬성	합계(사례수)
만족도	9.2	11.8	17.9	35.9	19.4	100.0(459)

* 무응답 제외

정양기관의 자립노력에 대한 생각을 성별·연령별로 평균값(3.27)으로 비교하여 보면, 여자는 3.18인데 비해 남자는 3.57로 남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이하가 3.58, 40대가 3.44, 50대가 3.03, 60대가 2.74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정양기관 자립노력에 대한 생각의 성별·연령대별 비교(5점 척도상)

구 분		평 균 값
성별	여자	3.18
	남자	3.57
연령대별	30대이하	3.58
	40대	3.44
	50대	3.03
	60대	2.74
전 체		3.27

(5) 퇴임 후 가고 싶은 정양기관

퇴임 후에 현재나 미래의 정양기관 중에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0.8, 세 번째는 0.6의 가중치를 주고 이를 더하여 응답자 전체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여 보면 총부에서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39.5%),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35.8%), 영산수도원(30.6%), 중앙수도원(27.4%) 순으로 나타나 경관 좋은 산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중앙수도원은 여자만, 원로원은 남자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 III-25> 퇴임 후 가고 싶은 정양기관 선호도

(단위: %)

	중앙수도원	원로원	동산수도원	영산수도원	총부근처 경관 좋은산골	어느곳이나 경관 좋은산골
비율(%)	27.4	8.0	10.8	30.6	39.5	35.8
	운봉	변산	서울부산대시	중소도시	기타	합계
비율(%)	7.7	14.8	10.4	11.0	26.3	100.0(428)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는 총부 근처 경관 좋은 산골(40.6%), 중앙 수도원(37.0%), 영산수도원(33.9%),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30.6%) 순으로 나오며, 남자를 보면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47.3%),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38.2%), 영산수도원(22.5), 원로원(18.4%) 순으로 나와 여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II-26> 퇴임 후 가고 싶은 정양기관 선호도의 성별 비교

(단위: %)

		중앙수도원	원로원	동산수도원	영산수도원	총부근처 경관 좋은산골	어느곳이나 경관 좋은산골
전체		27.4	8.0	10.8	30.6	39.5	35.8
성 별	여	37.0	2.9	10.9	33.9	40.6	30.6
	남	6.7	18.8	11.4	22.5	38.2	47.3
		운봉	변산	서울부산대도시	중소도시	기타	사례수
전체		7.7	14.8	10.4	11.0	26.3	428
성 별	여	7.5	13.4	22.6	12.2	24.7	287
	남	8.4	16.0	16.3	8.9	30.1	135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이하는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46.8%), 총부에서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37.2%), 영산수도원(27.2%), 변산(18.6%) 순으로 나오며, 40대는 총부에서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46.5%),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40.7%), 영산수도원(30.3%), 중앙수도원(19.7%) 순으로 나오며, 50대는 중앙수도원(37.5%),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35.4%), 영산수도원(35.0%),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31.6%) 순으로 나오며, 60대는 중앙수도원(54.2%), 동산수도원(33.3%), 총부 가까운 경관 좋은 산골(29.3%), 영산수도원(25.8%) 순으로 나와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중앙수도원과 동산수도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관 좋은 산골을 선호하고 있다.

<표 III-27> 퇴임 후 가고 싶은 정양기관 선호도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중앙수도원	원로원	동산수도원	영산수도원	충부근처 경관 좋은산골	어느곳이나 경관 좋은산골
전체		27.4	8.0	10.8	30.6	39.5	35.8
연 령 대	30대 이하	15.4	6.0	4.6	27.2	37.2	46.8
	40대	19.7	10.3	7.1	30.3	46.5	40.7
	50대	37.5	7.5	12.7	35.0	35.4	31.6
	60대	54.2	4.9	33.3	25.8	29.3	10.2
운봉		변산	서울부산대도시	중소도시	기타	사례수	
전체		7.7	14.8	10.4	11.0	26.3	428
연 령 대	30대 이하	7.7	18.6	11.2	16.1	33.0	114
	40대	7.6	14.7	9.8	12.0	22.2	147
	50대	8.0	13.8	9.5	8.0	23.8	112
	60대	8.9	9.3	12.9	1.3	30.2	45

다. 교역자 생활의 경제규모

(1) 교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규모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0만원 이하가 28.2%, 31~60만원이 29.8%, 61~100만원이 19.9%, 101~150만원이 13.6%, 151만원이상이 8.5%로 60만원이하가 58%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비에 대한 평균금액은 76.4만원이다.

<표 III-28> 교역자가 한 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규모 (단위: %)

	30만원이하	31~60만원	61~100만원	101~150만원	151만원이상	합계
비율	28.2	29.8	19.9	13.6	8.5	100.0(459)

* 무응답 제외

성별에 따른 평균 생활비는 여자는 54.1만원, 남자는 118.7만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한달 생활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이는 결혼 후 가족의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유무별로 살펴보니

기혼자는 127.9만원, 미혼자는 53.9만원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하였다.

<표 III-29> 성별·결혼유무별에 따른 한달 생활비 평균

(단위: 만원)

구 분		평 균
성별	여자 남자	51.1 118.7
결혼유무별	기혼 미혼	127.9 53.9
전 체		76.4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80.4만원, 40대가 90.5만원, 50대가 62.2만원, 60대가 55.3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급료형태에 따라서는 용금만 받는 사람이 58.8만원,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130.9만원, 급료를 받는 사람이 125만원으로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한달 생활비를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III-30> 연령대별·급료형태에 따른 한 달 생활비 평균

(단위: 만원)

구 분		평 균
연령대	30대이하	80.4
	40대	90.5
	50대	62.2
	60대	55.3
급료 형태	용금	58.8
	용금+생활지원금	130.9
	급료	125.0
전 체		76.4

(2) 퇴임 후 용금의 적절성

퇴임 후에 월 용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약간 부족하다가 35.9%, 매우 부족하다가 32.2%, 턱없이 부족하다가 15%, 그런대로 괜찮다가 13.3%, 그 정도면 충분하다가 2.4%로 부족하다가 83.1%로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반면 충분하다는 겨우 2.4%에 불과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는 약간 부족하다가 37.3%, 매우 부족하다가 29.7%, 그런 대로 괜찮다가 15.2% 순으로 나타나며, 남자는 매우 부족하다가 37.2%, 약간 부족 하다가 34.5%, 턱없이 부족하다가 16.2% 순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표 III-31> 퇴임 후 20만원 용금의 적절성

(단위 : %)

	1.충분하다	2.그런대로 괜찮다	3.약간 부족하다	4.매우 부족하다	5.턱없이 부족하다	합 계
전체	2.4	13.3	35.9	32.2	15.0	100.0(459)
성별	여	2.0	15.2	37.3	29.7	100.0(303)
	남	3.4	8.8	34.5	37.2	100.0(148)

* 무응답 제외

이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평균값은 3.45(5점 척도상)로 매우 부족하다와 약간 부족하다의 중간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결혼유무별로 보면 여자는 3.40, 남자는 3.54로 남자가 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기혼자는 3.60, 미혼자는 3.40으로 기혼자가 더 부족하다고 나타난다.

<표 III-32> 성별·결혼유무별에 따른 퇴임후 20만원 용금의 적절성(5점척도)

구 분		평 균
성별	여자	3.40
	남자	3.54
결혼유무별	기혼	3.60
	미혼	3.40
전 체		3.45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3.66, 40대는 3.44, 50대는 3.35, 60대는 3.14로 점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급료형태별로 보면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는 3.59,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3.50, 용금만 받는 교역자는 3.41로 나타나고 있다. 용금과 생활지원금은 받는 교역자가 부족함을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33> 연령대별·급료형태에 따른 퇴임후 용금 20만원의 적절성(5점척도)

구 분		평 균
연령대	30대이하	3.66
	40대	3.44
	50대	3.35
	60대	3.14
급료형태	용금	3.41
	용금+생활 지원금	3.59
	급료	3.50
전 체		3.45

(3) 교역자의 퇴직금(퇴임 후 개인자금)의 적정성

교단의 원로로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개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2,501만원~5,000만원이 22.0%, 1,001만원~2,500만원이 19.0%, 5,001~1억원이 18.5%, 501~1,000만원이 13.3%, 500만원 이내가 9.4%, 전혀 필요 없다가 4.6%로 나와 금액에 따라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혀 필요 없다는 4.6%에 지나지 않아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2,501~5,000만원이 24.7%, 1,001~2,500만원이 23.5%이 많이 차지하고, 남자는 5,001~1억원 정도가 28.5%, 2,501~5,000만원이 22.8%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34> 퇴임 후 퇴직금 정도의 성별 비교

(단위: %)

	전혀 필요없다	500만원 이내	501~1,000만원	1,001~2,500만원	2,501~5,000만원	5,001~1억원	1억원 이상	합 계
전체	4.6	9.4	13.3	19.0	22.0	18.5	5.0	100.0(459)
성 별	여	5.4	9.6	13.8	22.6	23.8	15.7	100.0(261)
	남	3.5	7.1	12.1	13.5	22.0	27.7	100.0(141)

* 무응답 제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5,001~1억원 정도가 26.3%, 1,001~2,500만원이 21.3%가 많이 차지하고, 40대는 2,501~5,000만원이 27.7%, 1,001만원~2,500만원이 20.4%, 50대는 2,501~5,000만원이 26.2%, 5,001~1억원 정도가 17.5%가 많이 차지하며, 60대는 2,501~5,000만원이 30.6%, 1,001~2,500만원 19.4%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표 III-35> 퇴임 후 퇴직금 정도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전혀 필요없다	500만원 이내	501~1,000만원	1,001~2,500만원	2,501~5,000만원	5,001~1억원	1억원 이상	합계(사례수)
전체	4.6	9.4	13.3	19.0	22.0	18.5	5.0	100.0(459)	
연령대	30대 이하	3.3	5.7	13.1	21.3	13.1	26.2	9.8	100.0(122)
	40대	6.6	8.8	10.9	20.4	27.7	18.2	4.4	100.0(137)
	50대	2.9	9.7	16.5	17.5	26.2	17.5	1.9	100.0(103)
	60대	8.3	13.9	13.9	19.4	30.6	8.3	0	100.0(36)

* 무응답 제외

라. 개인의 노후대책 현황

(1) 자신의 노후 준비 정도

자신의 노후 준비에 대한 답변으로 교단이 책임져 준다고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조금 준비하고 있다(34.6%), 대부분 교단이 책임져 주니까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다(27.5%), 교단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준비하고 있다(17.4%), 전적으로 교단이 책임져 주니까 내가 따로 준비할 것은 전혀 없다(10.7%), 나는 전적으로 나의 노후문제 해결을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4.4%) 순으로 나왔다.

<표 III-36> 자신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

	①	②	③	④	⑤	합계
비율	10.7	27.5	34.6	17.4	4.4	100.0(459)

* 무응답 제외

- ※ ① 전적으로 교단이 책임져 주니까, 내가 따로 준비할 것은 전혀 없다.
- ② 대부분 교단이 책임져 주니까,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다.
- ③ 교단이 책임져 준다고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조금 준비하고 있다.
- ④ 교단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⑤ 나는 전적으로 나의 노후문제 해결을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평균값으로 보면 2.61(5점척도)로 개인적 준비보다 교단에 의지하여 준비를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평균값(2.61)을 성별·결혼유무별로 교차분석해 보았더니 성별에서 여자는 2.38, 남자는 3.10으로 여자가 교단에 의지하여 개인 준비를 덜 하고, 결혼유무로 보면 미혼자는 2.46, 기혼자는 3.02로 역시 미혼자가 더 교단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7> 노후 준비 정도의 성별·결혼유무별 비교(5점 척도)

구 분		평 균
성별	여자 남자	2.38 3.10
결혼유무별	기혼 미혼	3.02 2.46
전 체		2.61

연령대별에서 60대가 2.00, 50대가 2.22, 40대가 2.85, 30대 이하는 2.96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단에 의지하여 개인적인 준비는 따로 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며, 급료형태별로 보면 용금만 받는 교역자는 2.54,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2.88,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는 2.95로 급료를 받는 교역자가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가 교단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8> 노후 준비 정도의 연령대별·급료형태별 비교(5점 척도상)

구 분		평균
연령대	30대이하	2.96
	40대	2.85
	50대	2.22
	60대	2.00
급료 형태	용금	2.54
	용금+생활 지원금	2.95
	급료	2.88
전체		2.61

(2)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

퇴임 후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4가지를 기재하게 하였다. 설문조사에 기재된 활동은 33가지로 나타났으나, 내용의 유사성과 빈도수에 따라 묶어서 사회봉사(사회봉사, 총부안내, 총부 도량 가꾸기, 박물관 안내, 운전도우미), 원예·전작(꽃가꾸기, 채소가꾸기, 차밭가꾸기, 과목가꾸기, 농작물 생산), 공예·미술활동(공예품, 도자기, 그림그리기), 현장도우미, 상담, 교육·지도(동화 들려주기, 고경지도, 붓글씨지도, 전통지끼기), 기타(춤추기, 가축기르기, 콩나물기르기, 웃수선, 출판, 휴양, 운동, 국악, 발효녹즙만들기, 명상관운영, 적공, 수행, 수익산업, 여행)로 처리하였다. 이를 한 사람이 기재한 각 항목별로 다 더해서 총 답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원예·전작(36.1%), 사회봉사(17.6%), 현장도우미(16.6%), 상담(12.1%) 순으로 나타나 원예 및 전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원예·전작(38.6%), 사회봉사(15.4%), 현장도우미(1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는 원예·전작(28.6%), 사회봉사(22.1%), 현장도우미(21.4%) 순으로 나타나 남자가 사회봉사나 현장도우미 등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9> 퇴임 후 선호하는 활동의 성별 비교

(단위 : %)

	사회봉사	원예·전작	공예·미술활동	현장도우미	상담	교육·지도	기타	합계(답변수)
전체	17.6	36.1	9.8	16.6	12.1	1.9	5.9	100.0(948)
성별	여	15.4	38.6	11.5	14.2	11.5	1.8	7
	남	17.6	36.1	9.8	16.6	12.1	1.9	100.0(661)

연령대별로 교차분석 해보면 30대 이하는 원예·전작(27.8%), 사회봉사(18.8%), 현장도우미(18.0%)순으로, 40대는 원예·전작(31.9%), 사회봉사(22.2%), 현장도우미(15.5%)순으로, 50대는 원예·전작(45.7%), 현장도우미(16.0%), 사회봉사(10.9%) 순으로, 60대는 원예·전작(46.0%), 현장도우미(15.8%), 사회봉사(14.5%)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원예·전작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0> 퇴임 후 선호하는 활동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사회 봉사	원예 · 전작	공예 · 미술활동	현장 도우미	상담	교육 · 지도	기타	합계(답변수)
연 령 대	30대 이하	18.8	27.8	9.0	18.0	14.9	3.2	8.3	100.0(255)
	40대	22.2	31.9	9.7	15.5	13.6	1.6	5.5	100.0(361)
	50대	10.9	45.7	10.6	16.0	8.9	1.6	6.3	100.0(256)
	60대	14.5	46.0	7.9	15.8	6.6	1.3	7.9	100.0(76)

급료형태별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용금을 받는 교역자가 원예·전작(37.1%), 사회봉사(16.1%), 현장도우미(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가 원예·전작(30.2%), 사회봉사(22.5%), 현장도우미(18.3%), 등으로 나타났고,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원예·전작(32.4%), 현장도우미(26.5%), 사회봉사(20.6%), 순으로 나타나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현장도우미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1> 퇴임 후 선호하는 활동의 급료형태별 비교 (단위: %)

		사회 봉사	원예 · 전작	공예 · 미술활동	현장 도우미	상담	교육 · 지도	기타	합계 (답변수)
급 료 형 태	용금	16.1	37.1	10.9	15.3	11.7	2.2	6.7	100.0
	생활 지원금	22.5	30.2	5.9	18.3	13.0	2.4	7.7	100.0
	급료	20.6	32.4	0	26.5	11.7	0	8.8	100.0

(3) 개인 보험 가입 현황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은 가입한 것이 없다가 15.3%이고, 가입자는 84.7%로 많은 교역자가 무엇이든지 하나이상은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가입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43.8%), 암보험(41.8%), 상해보험(20.5%), 기타보험 혹은 공제(18.5%), 은행 등을 통한 개인연금(8.2%)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일인당 약 1.5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2> 개인별 보험가입 내용

	없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보험	상해보험	기타보험, 공제	총가입수/총인원
가입자(명)	67	192	36	183	90	81	649개/438명
비율(%)	15.3	43.8	8.2	41.8	20.5	18.5	1.5개/명

개인별 보험가입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85.7%가 가입하고 있는데 반해 남자가 82.5% 가입하고 있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가입 내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암보험(43.7%), 국민연금(41.3%), 상해보험(21.2%) 등의 순으로 나타난데 비해, 남자는 국민연금(49.0%), 암보험(37.1%), 상해보험(19.6%) 순으로 나타나 여자는 암보험에, 남자는 국민연금에 더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 여부를 결혼유무로 볼 때 기혼자나 미혼자 공히 85.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서 여자교역자가 가입여부 비율이 높았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미혼 남자가 가입 안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내용을 결혼 유무별로 보면 미혼자가 암보험(45.6%), 국민연금이 (39.7%) 순으로 보이고, 기혼자는 국민연금(54.3%), 암보험(33.9%) 등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성별에 따른 분포와 비슷하다.

<표 III-43> 개인별 보험가입 내용의 성별 비교 (단위: %)

		없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 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 공제
전체(438)		15.3	43.8	8.2	41.8	20.5	18.5
성 별	여(293)	14.3	41.3	8.2	43.7	21.2	17.4
	남(143)	17.5	49.0	8.4	37.1	19.6	19.6

* 무응답 제외

보험가입여부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85.5%, 40대가 87.8%, 50대가 88.2%의 증가된 가입율을 보이다가 60대에 있어서는 63.5%로 가입율이 훨씬 낮아지고 있다.

보험가입 내용에 있어서는 30대이하, 40대는 암보험 가입이 50%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61.3%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60대에 있어서는 모든 가입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4> 개인별 보험가입 내용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없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 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 · 공제
전체(438)		15.3	43.8	8.2	41.8	20.5	18.5
연 령 대	30대이하 (124)	14.5	25.0	9.7	50.8	25.0	21.8
	40대(148)	12.2	48.0	11.5	50.7	23.0	18.9
	50대(119)	11.8	61.3	5.0	37.0	15.1	16.0
	60대(40)	37.5	37.5	2.5	20.0	15.0	15.0

* 무응답 제외

보험가입여부를 급료형태로 보면 용금을 받는 교역자가 84.4%,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가 86.2%, 급료를 받는 교역자가 93.3%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가입 내용을 살펴보면 용금을 받는 교역자가 암보험(42.5%), 국민연금(41.2%), 상해보험(19.8%) 순으로 나타났고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는 국민연금(50.6%), 암보험(39.1%), 기타 보험 혹은 공제(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국민연금(73.3%), 암보험(46.7%), 기타 보험 혹은 공제(33.3%) 등으로 나타나 대체

로 남녀 교역자와 비례한 수치로 나타났으나 급료를 받는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아주 높은 것이 눈에 띈다.

<표 III-45> 개인별 보험가입 내용의 급료형태별 비교

(단위 : %)

		없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 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 공제
전체(438)		15.3	43.8	8.2	41.8	20.5	18.5
급 료 형 태	용금(308)	15.6	41.2	8.1	42.5	19.8	17.9
	생활지원금(87)	13.8	50.6	9.2	39.1	21.8	23.0
	급료(15)	6.7	73.3	6.7	46.7	26.7	33.3

* 무응답 제외

보험가입 여부를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복지기관이 95.3%, 교당이 85.3%, 기타기관 81.7%, 총부 78.4%, 훈련기관이 75.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어 복지기관과 교당에 근무하는 교역자의 가입율이 총부나 훈련기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내용을 근무지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46> 개인별 보험가입 내용의 근무지별 비교

(단위 : %)

		없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암 보험	상해보험	기타 보험, 공제
전체(438)		15.3	43.8	8.2	41.8	20.5	18.5
근 무 지	총부(51)	21.6	29.4	11.8	47.1	21.6	15.7
	교당(267)	14.2	42.3	6.0	40.4	16.5	18.0
복 지 기 관	복지기관(43)	4.7	88.4	11.6	53.5	25.6	18.6
	훈련기관(12)	25.0	16.7	25.0	58.3	33.3	8.3
	기타기관(60)	18.3	38.3	8.3	31.7	30.0	25.0

* 무응답 제외

(4) 개인의 보험료 불입 현황

보험 가입한 교역자들의 보험료로 월 불입액에 대한 빈도는 5만원 이내(43.3%), 6~10만원(31.2%), 11~20만원(16.2%), 21~30만원(4.3%), 31만원 이상(5.0%) 순으로

나와 대부분이 10만원 이내(74.5%)로 불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47> 개인의 월 보험료 불입 규모

	5만원이내	6~10만원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이상	합계
가입자(명)	146	105	55	14	17	337
비율(%)	43.3	31.2	16.2	4.3	5.0	100.0

* 무응답 제외

보험료 개인당 평균 불입액은 10.87만원이다. 보험료 불입액을 성별로 보면 여자는 10.45만원, 남자는 12.00만원으로 남자가 높고, 결혼유무로 보면 기혼자는 11.26만원, 미혼자는 10.71만원으로 기혼자가 더 많이 불입한다.

<표 III-48> 월 평균 불입액의 성별·결혼유무별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평 균
성 별	여 남	10.45 12.00
결혼유무별	기혼 미혼	11.26 10.71
전 체		10.87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4.21만원), 50대(11.44만원), 40대(10.57만원), 30대이하(10.17만원)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급료형태별로 보면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12.50만원), 급료를 받는 교역자(11.18만원), 용금만 받는 교역자(10.74만원) 순으로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가 많이 불입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급료를 받는 교역자에 비해 노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은 데에서 나타나는 수치라 보여진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복지기관(19.81만원), 교육기관(14.43만원), 훈련기관(10.50만원), 교당(9.91만원), 기타기관(9.88만원), 총부(9.47만원) 순으로 복지기관 근무 교역자가 높은 불입액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료 불입자원이 다른 곳에 비해 복지기관에서는 직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표 III-49> 월 평균 불입액의 연령대별·급료형태별·근무지별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평 균
연령대	30대이하	10.17
	40대	10.57
	50대	11.44
	60대	14.21
급료형태	용금	10.74
	용금+생활지원금	12.50
	급료	11.18
근무지	총부	9.47
	교당	9.91
	복지기관	19.81
	교육기관	14.43
	훈련기관	10.50
	기타	7.83
전 체		10.87

(5) 보험료 불입 자원의 현황

연금이나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원은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용금이 76.1%, 직장이 10.9%, 기타가 7.8, 교당/기관 경상비가 5.2%로 나타나 대부분이 개인용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개인용금이 78.3%, 직장은 10.0%, 교당/기관 경상비가 5.4%로 나타나고, 남자는 개인용금이 71.7%, 직장이 13.2%, 교당/기관 경상비가 4.7%로 여자가 개인용금으로 불입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0> 보험료 불입 자원 현황 및 개인별 비교 (단위: %)

	개인용금	직장	교당/기관 경상비	기타	합계(사례수)
전체	76.1	10.9	5.2	7.8	100.0(348)
성 별	여	78.3	10.0	5.4	100.0(240)
	남	71.7	13.2	4.7	100.0(106)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개인용금이 82.3%, 직장이 5.2%, 교당/기관 경상비가 0%로 나타나 대부분이 개인용금이며 교당/기관 경상비는 하나도 없음이 특기할

만하며 이는 대부분 부직자로서 교당이나 기관에서 결재권이 없는데서 유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대는 개인용금이 72.0%, 직장이 14.4%, 교당/기관 경상비가 7.2%로 나타났으며, 50대는 개인용금이 70.1%, 직장이 15.5%, 교당/기관 경상비가 8.2%로 나타나며, 60대는 개인용금이 92.3%, 직장이 0%, 교당/기관 경상비가 3.8%로 나타나 개인용금에 의한 불입이 매우 높으며 반면 직장은 0%로 하나도 없음을 볼 때 연령적으로 정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1> 보험료 불입 자원의 연령대별 비교 (단위 : %)

		개인용금	직장	교당/기관 경상비	기타	합계(사례수)
전체		76.1	10.9	5.2	7.8	100.0(348)
연 령 대	30대이하	82.3	5.2	0	12.5	100.0(96)
	40대	72.0	14.4	7.2	6.4	100.0(125)
	50대	70.1	15.5	8.2	6.2	100.0(97)
	60대	92.3	0	3.8	3.8	100.0(26)

급료형태별로 보면 용금만 받는 교역자는 개인용금이 78.0%, 직장이 9.2%, 교당/기관 경상비가 5.6%로 나타나며, 용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교역자는 개인용금이 70.1%, 직장이 17.9%, 교당/기관 경상비가 3.0%로 나타나며, 급료를 받는 교역자는 개인용금이 75.0%, 직장이 16.7%, 교당/기관 경상비는 0%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2> 보험료 불입 자원의 급료형태별 비교 (단위: %)

		개인용금	직장	교당/기관 경상비	기타	합계(사례수)
전체		76.1	10.9	5.2	7.8	100.0(348)
급 료 형 태	용금	78.0	9.2	5.6	7.2	100.0(250)
	생활지원금	70.1	17.9	3.0	9.0	100.0(67)
	급료	75.0	16.7	0	8.3	100.0(12)

근무지별로 보면 총부는 개인용금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교당은 개인용금이 75.8%, 직장이 8.0%, 교당/기관 경상비가 7.2%로 나타나며, 복지기관은 개인용금이 48.6, 직장이 37.8%, 교당/기관 경상비가 5.4%로 개인용금의 비율이 낮고

직장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기타 기관들은 대부분이 개인용금에서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53> 보험료 불입 자원의 근무지별 비교

(단위 : %)

		개인용금	직장	교당/기관 경상비	기타	합계(사례수)
전 체		76.1	10.9	5.2	7.8	100.0(348)
근 무 지 별	총 부	94.1	2.9	0	2.9	100.0(34)
	교 당	75.8	8.1	7.2	9.0	100.0(223)
	복지기관	48.6	37.8	5.4	8.1	100.0(37)
	기타기관	86.3	7.8	0	5.9	100.0(57)

IV. 교역자 노후복지 의식조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

- ①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교역자가 남자교역자에 비해 신뢰도가 약간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 ② 교단의 향후 노인복지 문제는 93.6%가 심각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이 낫을수록 심각성 인지율이 높은 편이다.
- ③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현재처럼 시설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대책의 필요성(64.4%)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자가 국민연금을 들어 노후 용금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57.3%)도 있다.

30~40대는 시설에 모시는 것과 다른 대책 필요에 대하여 70%이상의 높은 요구가 있는 반면 50~60대는 국민연금 후생복지를 상향 조절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58.7%를 나타냈다.

- ④ 교단의 노후복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96.9%)의 교역자가 교단의 책임정도를 78.6% 정도로 보고 있으며, 21.4% 정도의 책임은 본인(44.4%), 근무 교당이나 기관(15.3%), 교구(11.3%)가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 ⑤ 노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문제가 56.0%, 수행정진이 17.6%,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문제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수행정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2. 정양기관

- ① 건립 장소로는 총부근처 경관 좋은 산골이나 총부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았으며 영산이나 어느 곳이나 경관 좋은 산골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연령대 별로 50~60대가 총부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30~40대는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 ② 건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에 대한 선호도가 단연 높았으며, 여자교역자가 특히 강한 편이다.
- ③ 규모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11명에서 50명이내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동 생활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4.6% 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④ 정양기관의 자립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55.3%가 찬성하는 반면 21% 정도는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으며, 남자교역자가 여자교역자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⑤ 퇴임 후 가고 싶은 정양기관에 대해 60대는 중앙수도원, 동산수도원을 50대는 중앙수도원, 총부근처 경관 좋은 산골, 영산수도원을 30~40대는 경관 좋은 산골, 영산 수도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3. 교역자 생활의 경제 규모

- ① 한 달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대해서 여자교역자는 평균 54.1만원을 남자교역자는 평균 118.7만원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40대는 90.5만원, 30대는 80.4만원, 50대는 62.2만원, 60대는 55.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② 퇴임 후 용금 2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83.1%)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③ 노후에 품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용돈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4.3%에 불과하였고, 23.3%는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40.8%는

5천만원 정도까지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23.3%에 달하였다.

4. 개인의 노후 대책 현황

- ①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교단이 책임져준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나 그래도 교단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약간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의 준비보다는 교단에 의존적 성향이 다소 강한 편이다.
- ② 퇴임 후 선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꽃·채소·차밭·과목 가꾸기 등의 원예 전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상담, 현장 도우미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
- ③ 현재 개인적으로 보험등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84.7%)의 교역자가 평균 1.5개 정도의 개인보험 등에 가입했으며, 국민연금(43.8%), 암보험(41.8%), 상해보험(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국민연금을 여자는 암보험을 더 많이 가입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다. 근무지별로 보면 교당에 근무하는 교역자가 총부나 훈련기관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인 것은 다소 의외의 상황이다.
- ④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교역자들의 보험료로 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5만원이 내가 43.3%를 차지하였으나, 31만원이상의 가입자도 있어서 전체평균 1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불입자원은 대부분(76.1%) 개인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V. 교단의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

교단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의식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그 동안 노후복지 문제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생각해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너무나

많은 격차와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전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심각해질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가기 위해 전교역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되도록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생각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후생회비 조정문제이다.

우선, 노후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96.9%)의 교역자가 교단이 78.6%정도 책임을 져야하고, 일부는 본인이나 근무지, 교구가 20%정도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책임의 주체인 교단의 실체는 무엇인가? 현재 교단의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는 후생사업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후생사업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거의 모든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현재 후생회비를 우리들의 노후대책에 충분할 만큼 상향조절해서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교역자 개인들이 보험료 등의 불입액은 월 십만원 정도인데 반해 후생회비는 월 평균 36,000원 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많은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약 80%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 교단에 대한 준비금은 36,000원이고 20%정도 책임질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100,000원 정도를 불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식의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의식에 맞게 후생회비에 대한 책임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후생사업회비는 근무하는 기관·교단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6등급의 급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역자의 직급 따라 2등급으로 구분되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0년 김언하가 석사연구논문에 제언한 바에 의하면 급지 산정 방식을 더 세밀하게 재조정하고, 후생회비도 최소한 10년 동안 10%씩 인상하는 방안 및 매 달 납부토록 하면서 자동납부 방법을 도입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1년 공익복지부에서는 급지별 차등화 폭을 상향 조절할 것과 교금의 일정액을 후생기금으로 상향 배정코자 하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어찌되었든 후생회비 금액이나 납부방식에 대한 전교역자의 어느 정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의식수입의 일부를 비율제로 후생기금으로 내는 방안이나 개인별 용금 비례 월 납부방식 등도 검토해 볼만하다.

둘째, 국가의 노후복지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이다.

노후복지 책임주체로 국가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전무출신은 교단에 몸과 마음을 바쳤으니 교단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처지라는 선입견으로 빚어진 결과라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가 단순히 시혜적 의미만이 아닌 사회적 노약자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당한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1개의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실비요양시설을 119개 정도 신축할 예정이라 한다. 그렇다면 경관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물색하여 정부로부터 실비요양시설을 기능보강으로 확보하는 노력만 한다면 건축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무연고자로부터 저 소득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셋째, 정양기관 및 정양방법의 차별화 문제이다.

앞으로 원불교 교역자 노후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처럼 시설(수도원, 원로원 등)에 모두 모시는 것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함에 많은 교역자가 동의하고 있다. 다른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설문지 문항으로 제시했던 퇴임교무님들이 교당에 사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가족이 있는 원로님들은 숙소를 사가에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등의 문항에 대해서도 30%이상의 교역자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공의복지부에서 제시한 주거공간 입주는 상주자(정남·정녀 등)를 본위로 하며 내왕자(가족이 있는 원로 등)는 공동방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은 타당한 방법이라 보여진다.

이는 원기 34년 있었던 원불교 내규 제 5장 전무출신 규정 제 6절 대우편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9조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만 61세가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기로 한다.

단, 공사간 특별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 30조 수양원은 갑, 을, 병 3종을 두고 전무출신의 성적에 따라 수용케 하
되 특등·1등은 갑종 수양원, 2등·3등은 을종 수양원, 4등·5등은
병종 수양원으로 한다. 단, 초창기 있어서는 합동수양 할 수도 있다.

제 31조 1기 전무출신과 2종 전무출신은 열반후 입묘는 같이하되 수양원 수
양비는 교중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교단 초창기에 앞으로의 노후복지 문제를 예견하고 수양원의 차등제 및 수양비 부
담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이 경이로웠다.

물론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지마는 교역자의 평소 근무형태나 급료형태, 결혼유무,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
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양기관의 유형 및 운영의 다양성 문제이다.

이는 교역자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거나 하고 싶은 활동, 정양기관의 위치, 규모,
정양기관 건립 시 고려사항, 정양기관의 자립여부 노력 등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윤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김언하는 정양기관의 유
형으로 수양형, 요양형, 활동형, 취미형 등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퇴직 교역자들의
취향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구비된 입지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양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월 평균 1인당 300,000원 정도의 운영비가 쓰여지고 있고, 1
인이 필요로 하는 평균 주거공간 10평에 대한 건축비를 20,000,000원 정도로 감안한
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우며, 도시지역을 선호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을 원하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하나를 얻어 4~5명이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
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룹홈은 교구내에 있으면서 독경반, 의식진행 보조
등의 교화 도우미를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동네 공원 꽃가꾸기 등을 하

면서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노후에 후진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퇴임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퇴임 후 일정기간은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가꿀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소규모의 그룹홈은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가능하며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교단내 수양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표 V-1> 참조

<표 V-1> 원불교 사회복지시설 전국 분포도 (어린이집 제외)

(원기 87년 2월 현재)

구분 지역	인가시설		비인가 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서울· 경기(6)	· 한국보육원	· 번동 2 종합 복지관, 등천 1 종합 복지관, · 유린 종합 복지관, · 원광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우이동 수도원
대전· 충남(3)	· 대전 수양원	· 중리 종합 복지관 · 원광 재가 노인 봉사센타	
대구(1)		· 지산 종합 복지관	
부산(3)		· 덕천 종합 사회 복지관 · 삼동재가 노인 봉사센타	동래 수양원
광주· 전남(3)		· 금호 종합 복지관 · 하남 종합 복지관	불목 요양원
전북· 전주 (14)	· 관촌 수양원, 장수 수양원, 원광 모자원 · 정읍 요양원, 고창 효도의 집 · 고창 노인 전문요양원, 전주 양로원 · 남원 인월 노인 전문요양원	· 전주 종합 복지관 · 평화 복지관 · 전주 노인 복지 병원 · 무주 노인 복지 회관	봉래 수양원 원평 수양원
익산· 군산 (18)	· 이리보육원, 이리자선원, 원광상록원 · 원광 요양원, 수양의 집 노인 전문 요양원 · 삼정원, 효도마을 수양의 집, 보은 의 집 · 정신재활센터, 동그라미재활원	· 동산 복지관, 부송 종합 복지관 · 원광 종합 복지관, 군산 노인 복지관 · 삼동 재가 노인 복지관, · 원광 자활후견기관, 동그라미 자활자립장	이리 수양원
제주(3)	· 제주 원광 요양원 · 제주 노인 전문 요양원	· 원광 재가 노인 봉사센타	

구분 지역	인가시설		비인가 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강원(1)	· 춘천 노인 전문 요양원		
충북(1)	· 원광 효도의 집		
계(53)	24개	23개	6개

※ 진한 글씨는 2002년 신규시설

다시 말하면 올해 신축하게 될 시설을 포함한 24개의 생활시설에서는 생활인 등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시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내에는 대체로 물리치료실 및 각종 운동기구, 의료서비스 체제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복지관 및 재가 노인 복지관 등 23개의 이용시설에는 반가운 이용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음을 물론 교단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속에서 힘 미치는 대로 자원봉사도 되고 때로는 수혜자도 되는 등 긴밀한 관계 속에 일원의 법음을 전하고 교화의 기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더욱 뜻 깊은 노년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조용히 수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관 좋은 산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수양에 전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양기관의 모델은 당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정양 기관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모델 창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향후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해 가는 바우처(voucher)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데, 발맞추어 원불교 정양기관도 다양한 모델 속에서 자신의 건강정도나 노후생활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양기관의 관리 및 퇴임자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다섯째, 교역자의 경제력에 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경제력이 전혀 없이는 자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아진다. 그 동안 전무출신은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해야만 한다는 개념에 짐작한 나머지 사적으로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에 대

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성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용금을 쪼개어 노후를 준비하는 노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지혜가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현실을 감지하고 전 교역자의 85% 정도가 개인적으로 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교역자가 되는 평균 연령이 32세¹³⁾로 볼 때 68세에 정년 퇴임한다고 하면 36년을 봉직하게 되고, 평균수명을 80세¹⁴⁾로 볼 때 12년을 정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막연히 교단에서 모든 책임을 져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된다.

이소성대와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교단의 구석구석 기관·교당을 늘려가는 헌신적인 공도사업과 아울러 교역자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암보험 등의 가입은 물론 용금의 일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자치적으로 큰 교당과 작은 교당의 연계를 통해 최저 용금제를 보장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교단에서 아니 좀더 정확하게 후생사업회에서 지급하는 후생복지금은 교역자의 노후 생활을 챙기고 총부와 연결하는 끈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후생복지금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으로 부족한 개인 용금을 채워갈 수 있는 준비가 훨씬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한 가지 첨부할 것은 교역자 생활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녀의 차별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한 남자가 용금에다가 생활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듯이 노후에는 결혼하지 않은 정남·정녀들에게 현재의 30,000원 정도의 특별 지원금과는 다른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13) 원기 78년~86년 사이 출가식 할 때 교역자 평균나이를 계산한 것임.

14) 현재 일반인의 평균수명 74.9세이다. 성직자의 수명이 4~5년 길다고 보는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80세로 추정해 봄.

<표 V-2> 교역자 노후복지 대책에 대한 역할분담

교단	개인	국가	교구·교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회비를 후생기금으로 · 매월 의식수입의 00% · 정양기관 운영비 · 후생복지금 지급(기본용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암보험등 가입 · 퇴직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 요양시설 확보 ·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용금제 보장을 위한 상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양기관 확보 · 의료보장 · 기본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용금 부족분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양기관 확보 · 프로그램 활용 	

VII. 마무리하는 말

교단의 노후복지에 대한 신뢰도는 반반정도이지만,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면 원불교 노후복지제도는 구조면에서 타종단에 비하면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¹⁵⁾ 물론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퇴보하는 것과 같으므로 1995년에 발표한 연구내용이 현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전체 교역자의 합의 아래 정책으로 입안되어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되어져서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춤추로 세간 교당을 순회하면서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생활을 주로 하여서 일생 생활에 결합된 점이 없게 하자」¹⁶⁾는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과 정산종 사님의 휴양의 도를 실천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15) 서 윤, *상계서*, p. 566.

16) 「대종경」, 서풀 18장.

참고문헌

<단행본>

- 「원불교 전서」, 익산, 원불교 출판사, 2000.
- 박광준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세종 출판사, 1999.
- 정경배외,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서울 : 사단법인 한국 노인문 제 연구 소, 1999.
- 김미혜 편저, 「행복한 내일을 위한 정년 길라잡이」, 서울, 1995.
- 김두섭 편저,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 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허정무저,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 충북: 도서출판 협신사, 2000.

<논문 및 보고서>

- 김언하,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 복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서 윤, “전무출신의 노후복지에 대한 의식조사”, 「원불교 사상 제 19집」, 1995.
- 심도정,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원광 172호, 1988.
- 임훈식, “교역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교역자의 실태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 논문,
- 조재학, “한국 기독교 은퇴교역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병태, “불교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천지연, “원불교 기혼 남자 교역자의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선조,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에 대한 연구”, 익산 : 원불교 수위단 사무처, 1998.
- 남궁원,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익산 : 원불교 수위단 사무처, 1999.

- 후생사업회, “2001년 출가 교화단 총단회 발표 자료”, 익산 : 원불교 교정원 공익복지부, 2001.
- 「주간 사회복지신문」, 2002. 1. 21.